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지음 | 김환영 그림



5, 6학년 중심 학년군 5, 6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수록

국어: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자주적인 삶을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주적인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 방법을 익힌다.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삶의 태도를 습관화한다.

3, 4학년

국어: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알을 품어 병아리의 탄생을 보겠다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양계장을 나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암탉 잎싹의 이야기다. 잎싹은 양계장에서 주는 대로 먹고 알이나 썩썩 낳아 주는 편안한 삶은 암탉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계장과 안전한 마당을 나와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다. 잎싹이 자기와 다르게 생긴 아기 오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키운 뒤 보내 주고 제 목숨을 족제비에게 내어 주기까지의 삶과 죽음,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소망과 자유, 그리고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아름답게 그린 장편동화다.

학습 목표

이 책은 알을 품어 병아리를 낳겠다는 꿈을 가진 잎싹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나마도 무정란인 알을 더 이상 낳을 수 없게 된 잎싹은 자기가 낳은 알을 품어 병아리를 기르는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잎싹은 누가 봐도 이루기 힘든 꿈을 갖고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며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잎싹의 삶은,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꿈이 사라진 아이들, 자기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아이들뿐 아니라 현대인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 등장인물의 성격과 장소의 변화, 장소에 따른 새로운 사건들 등 문학 구성의 3요소가 아주 적절하게 짜여 있어 아이들의 문학 공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1 잎싹의 소원이 무엇인지 찾고 자신의 소원을 생각해 봅니다.
- 2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 3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4 장소의 변화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등장인물들을 보고 인물의 성격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예상해 봅시다.

- 책 표지와 제목을 먼저 말해줍니다.
- 등장인물 그림을 하나씩 꺼내 보여 주며 질문합니다.

“이 인물은 어떤 성격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① 잎싹 ② 나그네 ③ 초록머리 ④ 족제비 ⑤ 주인집 개 ⑥ 마당 식구들

-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예상해 봅니다(모둠에 등장인물 그림을 나눠 주고 어떤 관계일지 예상하여 관계도를 그려 보게 합니다).

▶ 등장인물 그림은 나중에 독후활동을 할 때도 쓸모가 있으니 잘 보관합니다.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충분히 예상하고 난 다음에는 잎싹, 초록머리, 나그네의 이름을 미리 가르쳐 줘도 됩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마당을 나온 암탉』 마지막 부분 함께 낭독하기

● 아이들이 각자 책을 다 읽고 왔다면 마지막 부분을 복사하여 나누어 주고 함께 낭독해 봅니다. 앞쪽이 삶을 마치는 순간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실에서 선생님이 읽어 주고 있었다면 마지막 부분은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물론 낭독 분위기는 매우 진지해야 합니다.

▶ 앞씨의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 마당으로 나가는 것, 알을 품는 것, 엄마가 되는 것

▶ 앞씨가 다닌 곳은 어디였나요?

● 양계장 안, 죽음의 구렁텅이, 헛간, 마당, 풀숲, 저수지
 ● 장소의 변화를 잘 살펴보면 점점 앞씨의 선택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되고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생의 위협에서 안전한 양계장이나 마당과 헛간은 주인이나 마당 식구들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앞씨에게 새로운 삶은 늘 안전하지는 않은 풍요롭고 넓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결정은 앞씨가 합니다.



▶ 등장인물 가운데 자기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인물과 그 까닭을 말해 봅시다.

● 등장인물들의 어떤 점이 자기와 닮았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 자기뿐 아니라 등장인물들과 자기 주변의 인물들이 닮은 점이 있다면 그 점을 말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헛간의 암탉도, 새끼를 지키는 족제비의 모습도 엄마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 족제비에게 물려 죽은 앞씨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난스럽지만 않으면 어떤 이야기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 인상 깊은 장면 속 등장인물이 되어 걸어 보기 (개인 활동)

-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려 종이에 간단히 적습니다.
 (장소) _____ 에서 (인물) _____ 가 _____ (마음 상태나 사건) _____ 하여
 (어떻게) _____ 걷는다. (혹은 뛰다, 날갯짓을 한다 등)
- 인물이 걷는 모습을 상상하여 봅니다.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도 좋습니다.
 예) 앞썩과 초록머리가 이야기를 하던 동굴에서 족제비가 집에서 기다리는 새끼를 떠올리며 꼭 초록머리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날카롭지만 조심조심 걸어간다.
- “시작!” 하고 외치면 모두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때 소리는 내지 않고 오직 걸음걸이와 몸짓만으로 나타내게 합니다. 사람 수가 많으면 열 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30초~1분 정도 움직이게 하고 선생님은 인상 깊은 몸짓을 한 학생을 찾아봅니다.
- 호루라기나 타이머 같은 소리를 이용하여 신호를 주면 그 자리에 모두 멈춥니다.
- 모두 정지 동작을 한 뒤, 인상 깊은 몸짓을 한 학생에게 다시 시범을 보여 주게 하고 종이에 적은 상황을 움직임에 맞추어 읽어 줍니다.

▶ 장면을 정하여 걸을 때는 위와 같은 예시 문장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 개인 활동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모둠별로 등장인물을 하나씩 정하여 그 인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을 찾아봅니다. 모둠 전체가 어떻게 걸음 걸이나 몸짓을 표현할지 함께 의논하여 대표로 한 사람이 표현해 봅니다.



➔ 『마당을 나온 암탉』은 _____ 다.’ ㄱ에서 ㅎ까지(모둠 활동)

- 모둠별로 의논하여 이 책에 대한 소감을 ㄱ부터 ㅎ까지 각 자음으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하나씩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마당을 나온 암탉』은 ‘꿈을 이뤄 가는 이야기다’, ‘나그네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아버지다’, ‘다시 한 번 더 읽고 싶은 이야기다’ 식으로 이어 가면 됩니다.
- 각 모둠에서 발표하고 가장 멋진 문장들을 찾아봅니다.

▶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한 정리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며 책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활동입니다.



▶ 앞썩이 되어 편지 쓰기

- 족제비에게 물려 하늘로 올라간 앞썩이의 영혼이 되어 봅니다.
- 앞썩이 되어 아래 인물 가운데 하나를 골라 편지를 써 봅시다.
 - ①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난 초록머리
 - ② 앞썩이와 초록머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건 나그네
 - ③ 자신을 업신여겼던 마당의 식구들
 - ④ 초록머리와 앞썩이에게는 원수와 다름없었으나 앞썩이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애꾸눈 족제비
- 물론 앞썩이에게 편지를 쓰거나 글의 형식을 달리해도 좋습니다. 글쓰기 형식에 제한을 둔 이유는 그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글쓰기는 가장 간단한 독후활동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 후에는 글쓰기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늘 똑같은 ‘독후감’ 식의 글쓰기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이 책의 경우엔 꼭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정리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